

문화

광주비엔날레 재단 독립, 아직은...

재단 운영 맡을 대표이사 신설했지만 예산·인사권은 광주시에 감사원 "민영화" 권고 무시 공무원 파견 모든 분야 간섭 여전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의 대표이사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사권은 광주시가 쥐고 있어 비엔날레 발전을 위해 아무 의미 없는 개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는 "재단을 민영화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재단에 공무원 파견, 행정 부분 이외에도 모든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재단 팀장 4명이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등 인사를 둘러싼 말썽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 체제 기동

이번 정관 개정으로 부이사장(광주시부시장) 자리가 사라지고, 대표이사가 재단 운영과 사무를 맡게 됐다. 과거 부이사장은 이사장(광주시장)이 자리를 비우면 대신 회의 진행과 운영을 맡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리였다.

재단의 상임부이사장 직은 신정아 감독 선정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장직을 광주시장이 직접 맡으면서 생겨났다. 과거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나 있던 시장이 재단을 책임 경영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상임부이사장이 맡게 된다는 복안이었다.

이번에 사라진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지만 재단 내에서 실질적인 활동은 전무했다. 이사회

에 참석하지 않거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재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이사장-부이사장-상임부이사장으로 이어지던 복잡한 직제를 줄여 의사 결정 과정을 단순화시켰다.

또 상임부이사장과 이사들의 운신의 폭도 넓어졌다. 과거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1회 연임 규정도 삭제됐다. 경우에 따라 계속 연임한다면 종신 이사로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광주시의 간섭 여전

재단은 독립 법인일까. 광주시 산하일까? 이 질문에 대해 감사원은 '광주시 산하 기관'이고, 광주시는 '문화관광체육부의 관리를 받는 독립 법인'이라는 엇갈린 답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맡게는 한 해 1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지난 16년 동안 재단은 단 한 차례만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문광부 산하기구에 할 수 없다고 발을 빼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감사를 통해 "광주시는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위 법인(광주비엔날레 등 15개 법인)들을 이용해 조직과 인력을 편법으로 확대, 증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영화

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재단 장악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재단의 모자 예산을 쥐고 있다.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관리부장과 관리부 등은 모두 광주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맡고 있다.

예산을 전시에 집중해 전시의 질을 높였던 것과는 달리, 올 가을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시민 참여를 늘려라"는 광주시의 말 한마디에 예산 중 2억3000만원을 시민참여 행사로 편성해야 했다.

또 광주시는 재단의 실질적인 인사권자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 선임과 이밖에 신설된 대표이사 등 모든 직원들의 인사는 광주시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재단의 실질적인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부장과 팀장이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한 부장이 광주시와 계약이 되지 않아 재단을 떠났고, 팀장 4명은 불안한 근무형태 개선을 요구하며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신설한 것이며, 팀장 미계약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상임부이사장과 부이사장 체제를 대표이사 체제로 단일화한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서도 년별 퍼포먼스 '트레이너' 제작

문화공방 디케이비, 출연배우 공개오디션... 11월부터 50일간 공연

송승환이 제작한 '넌타'나 '점프'가 국내 팬들 뿐 아니라 외국인 팬들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작품들이 년별 퍼포먼스였다 데 있다.

년별(Nonverbal) 퍼포먼스는 대사가 아닌, 몸짓과 음악, 리듬과 비트 등으로 소통하는 비언어극을 말한다. 언어의 장벽이 없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르다.

광주에서도 년별 퍼포먼스 작품이 첫 선을 보인다. 문화공방 디케이비(주)는 비언어극 마스크 프로젝트 '트레이너(TRAINER)'를 제작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시행한 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상품 발굴 지원 공모작으로 선정돼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제작사가 4500만원을 자체 투자해 모두 1억 25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트레이너' 제작팀은 금남공원(옛 한국은행 부지) 앞에 위치



한 소극장 '공연 1번지'를 '트레이너' 전용극장으로 확보하고 장기 공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눈길을 끈다.

작품은 대규모 공연 축제가 열리는 극장 무대 뒤가 배경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들과 스텝들이 무대 뒤 신체 트레이너실에서 겪어본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했다. 작품의 포인트는 5명의 배우가 수시로 바뀌며 쓰는 마스크다. 배우들은 이 마스크를 통해 수많은 역할들을 만들어 낸다.

11월 초부터 내년 초까지 50일간 장기 공연을 진행하며 이후에도 작품 수정 과정 등을 거쳐 상설공연화 시킬 예정이다.

극단 '까치놀'을 중심으로 극단 '포커스 씨어터', 극단 'DIC', 극단 '행복한 사람들'이 협력단체로 참여해 제작하며 예술감독은 공동예술극장 관장 박윤모, 문화공방디케이비(주)이영민씨가 프로듀서를 맡았다.

작품에 출연할 배우들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상설 공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연극 배우와 기능인 등으로 두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만 25~35세 미만의 남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아 크로바틱, 무용, 리듬(기계) 체조, 연극 전공자들은 우대한다. 오디션 날짜는 오는 8월 5일이며 마임, 자유연기, 즉흥연기 등을 심사하게 된다. 지원서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문의 062-373-32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지원 맞춤 컨설팅 서비스 진행

광주문화재단이 지역예술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예술 창작 활동지원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재단은 최근 건물 3층에 컨설팅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문예진흥 기금 등 각종 창작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로도 활용된다.

이번 컨설팅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호남권 지역협력관이 참여, 중앙의 지원사업까지 아우르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컨설팅을 받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희망 날짜보다 최소 1주일전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등록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엄마 아빠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요"

'문화콘서트 난장' 내일 광주MBC 공개홀

광주MBC '문화콘서트 난장'(연출 김민호, 진행 하현우)이 여름방학을 맞아 '엄마 아빠와 함께 보는 공연'을 마련했다.

26일 오후 7시 광주MBC 공개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오랜 세월 동시대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장 한국적인 특색 선보여온 뮤지션 '강산에'와 순수함과 변함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채색하는 '여행스케치'(사진)가 출연한다. 또 스카프의 흥겨운 사운드 '카피머신', 에너지 넘치는 록밴드 '비겐후', 인디와 아이돌밴드의 경계를 허무는 실력과 3인조 여성 록밴드 '러버더키' 등도 출연해 세대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강산에는 이번 무대에서 '다구요', '와그라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환한 연어들처럼'을 비롯해 최근 자신의 목소리를 악기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도의 앨범 'kiss' 등을 선보인다.

관람신청은 문화콘서트난장 홈페이지(http://mbcnanjang.com)를 통해 250명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방송은 8월 13일과 같은 달 20일 밤 11시15분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 달거리' 이달 행사는

'이등병의 편지' 만든 김현성씨와 함께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매월 네번째주 월요일 시민들을 찾아오는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 달거리' 7월 행사가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상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달 '이등병의 편지'를 작사 작곡한 김현성씨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등을 만든 김씨는 현재 시 노래

모임 '나팔꽃' 동인으로 활동하며 공연과 글쓰기 노래 만들기를 하고 있다.

작곡가 김현욱, 소리꾼 윤진철, 화가 주홍씨가 이번달에도 함께 무대에 서며 무대 미술은 화가 한희원씨가 맡았다.

따로 입장권은 없으며 공연 관람 후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보태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한 행복장에 보내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Special Rate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페백실 / 페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뷔 페

₩29,000 / ₩33,000

양 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